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

디지털 혁신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메타버스 등 ICT 산업을 디지털 혁신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ICT 전문기관 실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지역상생·협력 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2019년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이름을 올린 충북혁신도시(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그 주인공.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중점을 두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명확히 파악하고 연도별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수립해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지역 학생 및 소외계층 대상으로 ‘ICT신기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주민초청 ‘ICT체험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로교육 유공 교육부 장관표창 수여 및 진로체험기관 인증(20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22년) 등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허성욱 원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ICT전문기관 실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상생·협력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015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지역사회와 융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소통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기관의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경.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소외계층 대상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펼쳐

ICT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지역인재양성’ 사업이다. 본 기관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시는 배후도시의 부재로 교육·문화 등의 정주 여건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2017년 진천 본원 청사 1층에 지역주민 누구나 ICT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을 구축하고, 매년 지역학생·소외계층 대상의 ‘ICT신기술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초청 ‘ICT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1,500여명의 지역주민이 VR, 드론, AI로봇, 3D프린팅 등의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디지털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박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 지자체·이전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취약계층의 ICT활동역량강화 활동 지원, 지역소비 촉진캠페인 실시,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인 IT나눔기금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디지털 정보격차해소와 디지털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명확한 주제와 목표를 설정해 지자체, 교육 지원청, 초·중·고·대학교 등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꾸준한 소통을 하고 있다. 각 주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맞춰 보육역량(인력, 장비, 시설·공간 등)을 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선정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본 기관이 보유한 ICT전문역량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과 미래형 인재양

성의 내용을 담은 ‘K-스마트 시범도시 구축사업’을 기획하여 정부에 제안, ‘20년 7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10대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지역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AI영재학급, IT스카우트단, 버추얼 클래스 어학과정 등 미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선도적 교육기회와 5G+실감교육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스마트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역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 확대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20년) 교육기부 우수기관에 선정(22년)되는 등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다. 사회공헌의 첫 출발점은 무엇보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대외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정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MOU 등)를 구축하여 ‘지역상생 협력모델’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연도별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수립해 가고 있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그동안은 지역학생과 청소년 중심의 ICT역량강화 활동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디지털격차해소와 디지털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참여대상의 폭을 넓혀 유아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체험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IT스카우트단, 영재학교, 예비취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심화교육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ICT기술트렌드를 반영해 메타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ICT신개념에 대한 체험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ICT전문기관으로서의 지역민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내년 예산 6조6천576억원 편성

올해보다 8.1% 증가... 감사효도비 25억 등 복지공약 투자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6조6천576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6조1천608억원보다 4천968억원(8.1%)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조8천773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74억원(12.4%) 늘었다.

보조금은 2천99억원 증액된 2조9천666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투자사업은 우선 김영환 지사의 공약사업에 4천137억원을 편성했다. 복지공약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98억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25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223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비 후불제 9억원, 청년 소상공인 부가차세 지원 4억원,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 1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370억원,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20억

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8억원 등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38억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이밖에 복지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천267억원과 기초연금 7천239억원 등이, 농업 분야에 농업직불제 1천584억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37억원 등이 포함됐다.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민선 8기 공약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일 ‘시각장애인 맞춤형 차량 기증식’에서 권오환 금융노조 현대차지부 정비위원회 의장(왼쪽부터), 이우중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태수 현대차 국내서비스사업부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충북도에 시각장애인특화차량 개발·기증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선보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개소 배치

충북도와 현대자동차는 2일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시각장애인특화 전기차량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우중 행정부지사, 노영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동일 충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이태수 현대자동차 국내서비스사업부장, 권오환 전국금융노조 현대차지부 정비위원회 의장, 김익훈(주)지무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현대자동차가 노사 공동기금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기증받은 전기자동차(아이오닉 5, 3대)는 장애인 이동권이 취약한 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3개소에 배치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는 도내 11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현대자동차가 기증한 차량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육성한 사회적기업(주)지무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점자 및 음성 안내 편의사항이 적용되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게 된다.

이우중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번 기증에 대해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충북도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수 국내서비스사업부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교통 약자들을 돕기 위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학생들이 진로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탐승형 가상현실(VR) 체험을 하고 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천시 '생활SOC 복합화시설' 착공

4천㎡에 남부시민 문화공간
공공도서관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조성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기
일시: 2022.11.1(화) 11:00 제천시

1일 김창규 제천시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시 생활SOC 복합화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천시는 1일 명지동 일원에서 남부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인 '제천시 생활SOC 복합화시설' 착공식을 가졌다.

총 사업비 138억(국비 48억, 도비 31억, 시비 59억)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4008㎡ 규모의 생활SOC 복합화시설로 건립된다.

도심 남부지역 문화·체육·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하1층, 지상4층

에 공공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출장민원실 등이 들어선다.

오는 2024년 하반기 준공될 이 시설은 남부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건물 내부의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 건

축 방향을 정했다.

김창규 시장은 "생활SOC 복합화 시설 조성으로 남부지역의 부족한 각종 인프라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시는 20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38억(국비 48억, 도비 31억, 시비 59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발대식을 가진 제천시보육연구회가 김창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육발전 고민하는 '제천시보육연구회' 발대

보육교사·시설장·학부모로 구성, 환경·정책·복지 등 개발

제천지역 보육발전과 환경·정책·지원 등을 연구하는 제천시보

육연구회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예술산책관에서 열린 발대식은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 50여명과 김창규 시장, 이정임 시장의 등이 참석해 연구회 발대를 축하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한'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연구회 회장에는 김선용 원장(영재어린이집)이 부회장은 조미경 원장(은하킴비테어린이집)이 각각 맡았다.

연구회는 보육수요를 둘러싼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학부모 등 70여명의 각계분야 보육 관련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육 현장 연구 조사와 자료수집, 보육홍보, 복지증진, 정책제안, 보육시설 협력·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선용 회장은 "회원들과 힘을 모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들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시민 공감 맞춤형 복지종합대책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매달 맞춤형 급여 지급 등

청주시가 겨울철을 대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 공감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 까지 4개월간 폭넓은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1만 6800여가구(2만 4600여명)에 맞춤형 급여(생계·주거 급여를 매달 지급하고, 동절기 대책기간 동안 인부확인, 후원물품 지원 등 연계사업을 한다.

기초수급에 해당하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는 김

급지원제도를 통해 구제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재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등에게 생계비(4인 기준 154만원 가량), 의료비(300만원 한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간 순찰반 24개조 96명을 편성해 노숙인 밀집 예상지역을 순찰해 발견된 노숙인은 시에서 지원하는 쉼터 2곳에 입소시켜 동사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청주형 긴급지원주택인 디딤하우스도 지난해보다 3호가 추가된 23호를 운영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등유, 연탄 등을 사용

라 집배민,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발굴체계 등 인적안전망을 강화했다.

올해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연락 두절된 217가구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벌여 연락이 닿은 140가구에 대해 기초, 긴급지원, 병원 진료, 후원물품 전달 등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했다.

이달까지 겨울철 방지 위험 홀몸노인 사전조사를 마무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청주살피미 안방' 안전확인업을 활용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최우수 시군 선정

2020년부터 3년 연속 수상... 상사업비 1억 원 확보

음성군은 '2022년 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군은 2020년과 지난해 우수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은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자리 시책 추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가린다.

군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9억 원을 들여 25개

사업을 진행해 3천249명에게 정부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지원센터,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군으로 선정돼 기쁘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보건소, 충북 최초 AI돌봄 로봇 대어

치매환자 10가족 돌봄 부담 감소... 다양한 역할 수행

음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충북 도내 최초로 AI돌봄로봇 '다숨K'를 활용, 치매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 대어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어르신에게 AI돌봄로봇을 대어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증치매로 악화되기 전 자존인

지·생활기능 유지를 통한 자가거주기간 연장과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AI돌봄로봇 '다숨K'는 양방향 대

화로 어르신들의 밭일이 돼 우울감, 고립감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알람 기능을 통한 대상자들의 복약 관리와 신체활동 지도, 치매돌봄 콘텐츠를 활용한 치매지원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사례관리 대상자 중 인지기능, 정신행동,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평가 등을 거쳐 대상자 10명을 선정받아 지난달 24~25일 재가 치매어르신



AI돌봄로봇 '다숨K'

10가구가정을 방문해 설치했다.

한편 생활기능보조장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치매안심센터(043-871-298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전국 지자체 중 79번째... 인증 기간 2026년 11월까지 4년간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참여 위원과 직원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최종 보고회를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진천군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 아

동이 살기 좋은 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진천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79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6년 11월까지 4년간이다. 군은 2019년 6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로 '아동친화드림팀'을 신설하고 10가지 필수요소를 추진한 지 3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군은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20년에는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을 구성하며 아동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했다.

청주시, 저소득층·수급자 자활지원 상담

청주시는 실직·미취업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일자리 연계 자활지원계획 상담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자활지원계획'은 체계적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근로를 통한 소득지원으로 근로 의욕과 자존감을 높이는 등 일을 통한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사창동

고용플러스센터에 직원 2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해 일자리 연계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자활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청주시복지팀(043-230-7074)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

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활상담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일자리 연계를 성과가 크므로 적극적인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자활지원계획 상담으로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에 75건, 지역자활센터에 188건 등 총 266건을 취업 의뢰했다.

"마음은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3일 이전 (제품은 판매달일)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옥천 “자유·문화공간 조성해주세요”

청소년참여위원회, 환경 개선 등 정책 제안

옥천군 청소년들이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을 군에 요청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 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8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청소년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안할 정책을 선별했다. 요청한 내용은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도

서관 열람실 24시간 개방 등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개선책으로 주를 이뤘다. 이외에도 버스 시간 조정, 전자내판 설치 등 군민 모두를 위한 정책도 건의됐다. 군은 제안 사항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황규철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행정



황규철 옥천군수는 청소년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을 듣고 있다.

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기구다.

청년 봉사단체 복지공감, 나눔 실천



청년 봉사단체 복지공감이 지난달 31일 옥천군 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에 현금 1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옥천 행복나눔마켓에 현금 100만원 기탁

청년 봉사단체 복지공감(대표 공경배)이 옥천군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에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공감은 충북도립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생 200여 명으로 이뤄진 봉사단체이다.

지난해 10월 옥천군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필수품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공경배 대표는 “지역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홀몸 어

르신들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매년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활동하는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공감은 2016년 연탄 나눔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옥천군 노인 및 장애인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1000장과 백미 50Kg을 지원하는 등 매년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또 충청북도에서 청년단체 지원금을 받아 천연비누를 나누는 등 매년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괴산군, ‘행복택시’에 고교생·청소년 통학택시 포함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군의회 거쳐 내년부터 시행

괴산군이 ‘행복택시’에 고등학교생과 청소년의 통학택시를 포함하고 대상 마을도 확대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행복택시 탑승자 기준을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 외에 고등학교생과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행복택시를 고교생의 등교(야간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포함)와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 이용 청소년의 심야 귀가에 이용하는 통학택시도 행복택시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복택시 운행 마을도 소수면 입암리 원장골마을과 소수면 아성리 부처골마을 등 2개 마을

을 추가해 11개 읍·면 31개 마을로 확대한다. 행복택시 운행 횟수도 조정한다.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와 16일부터 말일까지 각각 50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운행횟수 제한 규정을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매달 100회로 바꾼다. 다만 학생과 청소년 통학택시 운행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복택시 운영 개정 조례(규칙)안은 316

회 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탑승자가 부담하는 이용 요금의 경우 주민은 읍·면소재지까지 1천500원, 군청 소재지까지는 3천 원이다. 학생은 군내 어디든지 1천 원이다. 군은 연간 3억 원 가량을 읍·면을 통해 위임받은 택시 지부에 비용을 지급한다. 군은 2015년 7월 20일부터 행복택시를 도입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추진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6일 괴산군에 따르면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지원 등 이동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다. 군은 관련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는 대로 선정한 보험회사와 계약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 등이 다. 이 가운데 ‘노인 등’은 65세 이

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주민이다. 지난달 기준 괴산군 등록 장애인은 3천703명, 만 65세 이상 노인은 1만3천864명이다.

영동군, 맞벌이 가정 육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2021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A등급’

영동군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전국 농촌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78개소 중 상위 30%에 속하여 A등급을 받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평가는 서비스 이용 만족도, 아이돌봄비 활동, 예산 집행률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12개 지표별 정량평가로 실시되었으며 도내 8개 군 중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만 A등급을 받았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돌

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은 현재 영동군가족센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가정 71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부모들의 시름을 덜었다. 군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 해소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로컬푸드 활용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밀키트 제작, 농촌 어르신에 배송 추진

증평군이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식생활교육증평네트워크

소속 식생활교육 전문 강사들과 함께 제철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밀키트를 제작해 12월 중순까지 마을 단위로 배송하고 식생활 교육도 진행한다. 지난해 증평군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

구용역 당시 만족도 조사가 93.5%로 나왔으며, 지원 희망 형태는 밀키트가 86%로 가장 높게 나온 점을 참고해 올해 1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의 우선 소비와 이를 활용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점차 예산을 확대 편성,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보건소, 의료 취약지역 안 검진 무료 실시

보은군보건소(소장 김기혜)는 지난 8일 마로면 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의 시력 향상과 실명 예방,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60세 이상 지역 주민 185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 검진을 실시했다.



보은군보건소가 지난 8일 지역 주민 185명을 대상으로 안 검진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안과 의사 2명과 검진인력 5명으로 구성된 실명예방전문 검진팀이 정밀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망막검사 등을 하며, 실명을 유발하기도 하는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실명예방재단은 실명 예방 및 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

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비(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치료 포함)를 지원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43-540-5652)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검진으로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인다 생각했지 이렇게 큰 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수술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청주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청주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3차부터 8차까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한 발달선별평가로 실시된다. 검사는 총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은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영유아가 정이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는 최대 20만 원까지다. 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올해 3차부터 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대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2022 세계사회복지대회 국내외 전문가 지혜 모아



2022 세계사회복지대회 첫날 안나마리아 캄파니니 IASSW 회장, 서상목 ICSW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비전선포식을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0여개국 200여명 등 참석... 국제 현안 머리 맞대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회복지 해결방안 논의

‘2022 세계사회복지대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사회 복지 분야 세계 최대 학술 행사로,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SW)·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서울사회복지재단·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사회복지공공재단·한국사회복지공공모금회·중앙일보가 후원에 참여했다. 한국은 앞서 2016년에 세계사

회복지대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2020년 ICSW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올해 대회를 다시 한번 유치했다. 이로써 한국은 최초로 세계사회복지대회를 두 번 개최한 나라가 됐다. ICSW와 IASSW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국내외 참가자들의 원활한 대회 참여를 위해 오프라인 현장 행사는 물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대회 공식 홈페이지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40여 개국 200여 명의 발표자 외에도 각국의 정책관계자, 학계 인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개발 분야의 여러 구성원들이 한곳에 모여 사회복지 관련 국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 행사 첫날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서상목 ICSW 회장, 안나마리아 캄파니니 IASSW 회장의 개회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대통령실 축하 대독, 글로리아 킴벌 아일랜드 왕립외과대학교 교수 등의 기조강연 사회복지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닐 길버트 미국 버클리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서 회장이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에 대해 특별강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둘째 날과 마지막 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본사에서 취약계층 : 사회적 보호를 위한 과제, 사회복지교육 및 역량 강화, 위기 속 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에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사회복지 교육 및 사회개발분야의 디지털화와 ICT, 코로나 이후의 회복: 개발 및 재건의 기회·향후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심포지엄 및 워크숍, 발표회가 진행됐다. 여기에 국내외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지혜를 모음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할 사회정책·사회복지교육·사회복지실천전략이 논의될 수 있었다. 한편 행사 참여자들은 마지막 날에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을 방문해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상목 ICSW 회장은 “이번 세계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 분야 글로벌 어젠다를 세팅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미국 폭스뉴스·마켓워치 등 수백 여 개 외신에도 소개되며 한국의 사회복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자 모집

내달 15일까지... 공공정책수가 이행 첫 걸음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모일 기준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

걸음이다. 공공정책수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그간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

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으며, 2017년부터는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수가를 지원했다. 다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

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 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소외계층 무료구독신문 확대한다

25종에서 32종... 내달 2일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회적 소외계층이 무료 구독할 수 있게 지원되는 신문을 현행 25종에서 32

종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부터 주간신문, 특수신문도 무료 구독할 수 있게 하며 일

부 신문의 경우 외딴 섬이나 벽지 등 배달 곤란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PDF 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이다.

언론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17구에 1종씩 약 1만 가구에 연간 10개월간 무료 구독 기회를 준다. 무료 구독 신청은 정부 민원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팀(02-2001-7553)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정신병원 다녀간 아동 만 명 넘어

약물 처방 93만건... 13세 이상 우울증 환자 급격히 증가

올해 8월까지 우울증과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이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신병원을 찾은 아동 수는 1만2128명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입원환자는 1056명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0~6세 아동 1511명, 만 7~12세

아동 4226명, 만 13~17세 아동 6391명이 정신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ADHD가 3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2320건, 기타 불안장애 814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641건 순이었다. 아동 환자 중 만 12세까지는 ADHD나 발달장애 등이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 환자가 2114명으로 급격히 늘어 정신병원을 찾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 만 0~6세 아동이

30명, 만 7~12세 아동 95명, 만 13~17세 아동이 931명으로 청소년기 아동이 88%를 차지했다. 입원 사유 역시 만 12세까지는 ADHD가 많았지만, 만 13세부터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처방된 정신과 약물 건수가 93만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114억원이 넘었다. 이 중 항정신병약물이 약 35만 건으로 제일 많았고 금액은 82억원에 달했다. 항우울제는 처방 건수가 약 33만 건으로 28억원, 항불안제는 약 17만 건으로 2억5000여만원, 수면제는 약 8만4000건으로 처방금액은 1억6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맞춤형 지원한다

은둔형 청소년, 특별지원 포함

최근 청소년 자살률과 자살·자해 시도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가 고(高)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예방 대책을 내놨다. 위기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24일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 간 9~24세 청소년 자살률은 44%, 10대 자살·자해 시도는 69%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6.4명인 데 비해 한국은 10.4명에 달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상담원이 직접 접촉하는 ‘사이버아웃리치’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강화한다. 김현숙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상담원을 8명에서 18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정서행동특성 조사도 실시한다. 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 위기 청소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202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에 특화된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임상심리사를 2명씩 신규 배치하고, 정신과 의사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청소년 상담 1388(전화, 모바일, 사이버)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도 기존 155명에서 두 배 이상 늘린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고위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와 가족센터(244개)의 고위기 청소년 가족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의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원, 시각장애인용 점자태그 보급

생활 안전 확보 위해 제작

한국소비자원은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예협의체와 시각장애인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자태그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다양한 생활가정용품 중 일부 품목은 용기 형태가 같거나 비슷해 시각장애인이 이를 식별해 구분 지어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주방·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등 다소비 품목 5종을 중심으로 제품에 갈색 줄

수도도록 점자태그를 제작했다. 점자태그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돼 욕실, 세탁실 등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위생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분리형 체결방식으로 설계돼 다양한 규격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날 점자의 날을 맞아 생활가정용품과 점자태그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다. 점자태그는 연합회 17개 지부를 거쳐 전국 시각장애인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연합회와 협업체



갈색 줄을 끼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태그.

점자태그 제작 품목을 선정하고 시제품 가독성 평가를 진행하는 등 시각장애인 참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음성군 장애인들에 스마트한 복지 지원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일 장애인의 복지접근성 향상을 위해 군내 유관기관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복지관 '스마트복지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 홍보 협조·컨텐츠 제작 등 협력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장애인의 복지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복지 구축사업'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청북도협회 및 도내 12개 장애인복지관이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복지 구축사업은 코로

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지역 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이러닝 사이트 '온도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2일 '스마트복지 구축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의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음성군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센터장 김용태), 음성군장애인부모연대(회장 정윤미),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진우), 음성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임성진), 음성군수어통역센터(센터장 이상원)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날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각 기관 대표 등이 참석,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복지 구축사업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스마트 구축사업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참여자 홍보 협조, 기관별 컨텐츠 영상 제작 협조, 기타 상호 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호찬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의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복지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www.cbonline.or.kr이며,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닝 사이트 '온도계'는 공감, 배움, 소개, 소통의 카테고리로 운영되며,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동영상 강의와 여행, 건강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천 로템청소년학교는 지난 3일 관계자들과 내외빈이 생활관 준공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천 로템청소년학교, 생활관 등 준공식

22억 투입... 시설 아동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제천 로템청소년학교(교장 김 대복)는 학교 내 증개축 공사를

마치고 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김장규 제천시장 등 내빈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부분 축소해 진행했으며 간

단한 경과보고와 인사말, 커팅식 등의 식순으로 치러졌다.

이후 새로 증·개축된 생활관과 프로그램실을 돌아보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이번 공사는 생활관, 프로그램실 등 총 3층(1천200㎡)을 증개축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국비 8억9천만원, 도비 2억6천만원, 시비 7억7천만원, 자부담 2억8천만원)을 투입했다.

김대복 교장은 "생활관과 프로그램실이 마련돼 시설 내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발표대회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9일 '제8회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한)은 9일 '제8회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충북도 내 발달장애인의 자기주장 발표를 통해 자기 표현 및 자기옹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행된 행사이며, 이번 대회는 '나의 모든 순간이 빛나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일 자기표현(비대면) 분야에

는 14명, 9일 자기주장(대면) 분야에는 20명이 참가하여, 총 34명의 발달장애인이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꿈꾸는 지역사회(장애인 편의시설 등)', '내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자립생활', '자유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래, 춤, 말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즐거움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정성가득 김장김치로 온정 나눠요"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은 15일 자원봉사단체인 영동난계로타리클럽과 연계하여 '2022년 희망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영동군장애인복지관 '2022년 희망의 김장나누기 진행'

영동군장애인복지관(관장 박병규)은 15일 자원봉사단체인 영동난계로타리클럽(회장 김영주)과 연계하여 '2022년 희망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 내 김장을 직접 하거나 구입해 먹기도 어

려운 재가 장애인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영동난계로타리클럽과 절인배추 손질 및 김치 양념을 버무려 완성된 김치를 포장하였다. 영동난계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회원들과 함께 김장한 김치가 지역 내 재가장애인들에게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병규 관장은 "오늘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가득 담은 김장김치가 우리 재가장애인에게 영양보급과 건강한 식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시-BGF 충북지역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

CU편의점 가맹점주 300여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등



청주시는 10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청주복지재단, BGF(CU편의점) 충북지역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10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청주복지재단, BGF(CU편의점) 충북지역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

시장과 김용희 청주복지재단 네트워크 팀장, 김영두 BGF 충북지역부 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CU편의점 가맹점주 300여명 명예사회복지공무

원 위촉(복지안전망 확대), 종사자 교육 참여 및 지원,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연계, 복지정보 등 영상 및 제작물 게시 홍보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수원세 모녀 사건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인적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역 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지인적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시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편의점 종사자들이 함께 동참해줘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BGF리테일에 감사를 표했다.

"겨울 이불, 꿈 나르는 빨래방에 맡겨주세요"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이불 세탁 서비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이 무겁고 세탁하기 어려운 겨울 이불을 미리 세탁해 포근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꿈나르는 빨래방'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복지관은 보은군 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서비스는 여름내 사용하던 이불을 깨끗이 보관할 수 있도록 세탁해주고, 성큼 다가온 겨울에 사용할 이불을 미리 세탁해주는 서비스로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직업지

원팀(043-544-5446)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미선 관장은 "많은 관내 취약계층이 세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세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세탁물을 수거하거나 배달할 때 이동 상담도 병행해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북복지넷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 놓는다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 추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맞춤형 정책... 민관 손잡고 취업서비스 확대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예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정부는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윤석열정부 청년 지원 정책

① 일자리 정책

새로운 청년 맞춤형 고용정책은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존에 주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훈련, 일경험 및 취업 실천 기술 등의 고용서비스를 대학 재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대학 재학연생에게는 가정 '빌드업(Build-up)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정보 탐색 및 희망하는 취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등 다양한 역량 개발 기회 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전공 및 관심 직업의 임금, 일자리 수요, 필요자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이후 컨설턴트와 심층 상담 및 직업탐색을 통해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직장체험 등을 지원받아 진로탐색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고학년 청년 대상으로는 가정 '점프업(Jump-up) 프로젝트'를 운영해 실제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구직의욕과 취업역량에 기반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프로그램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다.

취업역량이 충분한 청년에게는 AI 면접 지원,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실천 기술 향상프로그램 중심으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훈련이나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활동 계획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는 정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민·관 협업의 두 가지 고용촉진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업무협약을 맺어 주로 대기업 그룹이 참여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중견·중소기업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 '청년친화형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적 전문성과 시설·장비 등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정부는 일부 운영비와 청년 참여자 수당,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② 주거 정책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공급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인 역세권 첫집은 2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청년 주택 수요자들에게 벌써 높은 관심을 받는 청년 원가주택을 팔 그대로 거의 원가에 분양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설계된다.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도 확대한다.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방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최장 6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뒤 7년이 이내의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70~80%선에서 공급된다. 아파트는 기존 임대조건 80%를 보증금으로, 20%는 월세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보장된다. 대표적인 정책이 2023년부터 도입하는 '청년도약계좌'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뒤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③ 금융 정책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일찌감치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여줬다.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 수요에 대한 금융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자산 증식 지원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 중심에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탈바꿈한다.

④ 참여 정책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세대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 11월 중순까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 부처 기관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다.

청년보좌역을 채용하는 9개 부처에서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도 운영한다. 20대와 30대 중심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정부는 9개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범정부 청년정책추진계획

① 공공주택 공급 등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정책을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확대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주거급여 지원을 늘리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가운데 34만 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과 자산,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눈

형(25만 호)·선택형(10만 호)·일반형(15만 호)의 세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건설비가 수준(시세의 70% 이하)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의 모델로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차익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선택형은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한다. 그간 특공에서 미혼 청년은 배제돼 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20%는 추첨으로 선정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1000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②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와 관련해선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을 민·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 고용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해 청년실업 해소에 집중해왔으나 청년인구의 감소세 전환,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경향 등이 더해져 정부 주도의 청년 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일 경험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신기술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 재학생과 구직단념청년 등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교육 분야에선 신산업과 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산업 수요에 맞게 민·관이 협력해 대학에 설립하는 조거취업형 특약학과를 확대(8개교→11개교)하고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늘려 SW·AI·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를 키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국가장학금을 계속 지원해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청년들의 복지는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해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이다.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간 11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③ 청년보좌역 운영 등

청년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뒤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의 청년 비율도 2025년까지 30% 비율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약을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부위원장)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중앙부처의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도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 평가로 개선된다. 총 376개 세부 과제를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묶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과제에 대해선 심층 평가를 통해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마련한다.

한 총리는 "우리가 당면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분절적·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감 676호, 677호)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대학생,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서비스 개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 진로찾기부터 훈련·일경험까지 패키지 지원 · 지학년 직업정보 제공 → 직업포트폴리오 설계 · 고학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훈련·일경험 등 제공
구직단념 청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 특화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 수준 확대 단기(1~2개월) ●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신설 수료시 20만원 ● 참여수당·인센티브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 구직단념·정기실업 등 취업 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규모 확대 '22년 1년 최대 960만원 ● '23년 2년 최대 1,200만원

저소득 청년 주거지원 확대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저소득 독립 청년 월세 지원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12개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확대	·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청년 지원 수준 현실화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22년 46% ● '23년 47% 이하 ·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 수급자 '실제 지불 임대료' 지급 *시장 임차로 반영해 지급상한 인상 추진

교육비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게 유지 '22년 2학기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기술석사 ● 특수·전문대학원생 추가 · '학점은행제 학습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23년~)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	· 경제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대상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기초 차상위: 연 700만원~등록금 전액 △ 1~3구간: 연 520만원 △ 8구간 이하 다자녀: 연 450만원~전액(첫째·둘째 전액(셋째 이상))

사회 출발 자산 형성 지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 5년 후 최대 약 5,000만원 청년 월 40~70만원+정부매칭 최대 6% * 세부사항은 예산 확정, 금융권 협의 거쳐 발표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 3년 후 최대 약 1,500만원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정부매칭 최대 30만원 '22년 10.4만명 ● '23년 17.1만명
2025년 병사월급 최대 205만원	· 월급 인상 *병장 기준 '22년 67.6만원 ● '23년 100만원, '24년 125만원, '25년 150만원 · 장병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22년 14만원 ● '23년 30만원, '24년 40만원, '25년 55만원 * 개인 월 납입한도 및 정부매칭 상향 예정

취약 청년 도약 지원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생계부담 완화 위해 자립수당 인상 '22년 월 35만원 ● '23년 월 40만원 · 자립지원 전담기관 역할 강화 사례관리: '22년 1,470명 ● '23년 2,000명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지원사업 모형 개발('23년) ● 모형 도입 검토('24년)
장애대학생/대학원생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역할 확대 진로·취업 포함, 고등교육 단계 전체 지원으로 확대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 운영('23년~)

복지광장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해에 맞은 아동학대 예방주간

복지포럼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성공적 기대



박 월 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2022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대한민국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대의 위험성을 간파해 온 것도 사실이다. 2021년 1월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의 인격과 권리는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특히,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예민하게 아동학대 판단과 법적 처벌의 잣대를 적용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들의 성장별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개인에 따라 속도와 현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여 소통하는 양육 방법이 필요하다.

부모로서 나의 양육 방식에 대해 되돌아보며 개선사항을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일원화되었고, 학대 조사와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경찰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11월 21일부터 한 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불행한 일의 예방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아동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본인을 지킬 힘이 없는 미성숙한 아이를 지키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할 일이고, 현재 아동보호 체계 속 관련 기관만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11월 21일부터 한 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불행한 일의 예방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김 속 경

청주시덕별다함께돌봄센터장

지난 8월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에 '청주시덕별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했다.

청원구 내덕로 27번길 35, 3층에 위치한 덕별다함께돌봄센터는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으로 조성되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 '다함께돌봄 시범사업' 10개소 실시 후 2021년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화가 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들의 돌봄 문제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직장에도 다닐 여건이 되지 않아 휴직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는 아침에 등교하면 수업을 일찍 마치기 때문에 방과 후 돌봄이 어렵다. 특히 방학 중에는 부모들이 사비를 들여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금의 시대는 출생률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한두 자녀 위주로 부모와 자녀만이 사는 가정으로 핵가족화가 되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증가 등으로 양육환경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 상황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결국 7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 둔 맞벌이 부부 중에 일하는 여성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

면 일과 가정의 병행이 더 어렵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력단절 여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 센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돌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자격을 갖춘 관리자와 돌봄 교사 상주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아동에 대한 생활 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노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부모들은 돌봄과 교육은 분리될 수 없으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없이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아이를 낳아 키울만하다고 느낄 때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며, 이것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안심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워킹맘들이 사교육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고도 마음 놓고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에 이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은 줄고 아동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덕별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 시간대에 보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돌봄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 내에 틈새 돌봄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부모들이 믿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맞춤 돌봄으로 학습은 물론 신체 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과 체험으로 돌봄만이 아닌 아동들이 꿈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알뜰살뜰히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현장의 목소리

가면을 벗고 주민과 만나기



강 현 구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종합복지관이 위기라고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던 다양한 서비스는 더욱 세밀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종복지관과 지역사회로, 사례관리 영역은 민에서 관으로 옮겨가고 있다.

종합복지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 위기 속에서 종합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은 깊어져 간다.

누군가는 종합복지관의 꽃은 주민조직화라고 얘기한다.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주민조직화사업만이 답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이제 종합복지관의 모든 사업이 일방적인 서비스제공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어울리는 과정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에 그 의미를 담았다

고 생각한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어울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최우선은 '진솔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주민조직화' 사업을 담당하지 4년차를 맞이했다.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주민조직화 사업을 맡게 되었고 소극적인 성격에 낮가림도 심해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책임감은 지금도 또렷이 생각이 난다.

"날 때부터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실패도 경험이다"라는 슈퍼비전에 힘을 얻었다가도 주민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침울한 기분이 그날 하루를 종용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부담감과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다보니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가면을 쓰게 되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씩은 소리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가면이었다.

가면을 쓰고 주민을 만나니 모든 것이 일로 느껴졌다. 만남을 일로만, 모임에 오는 주민들을 참여자로만 인식하니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닌 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주민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가면을 벗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들이 원인이었다.

수많은 주민조직화 관련 역량강화 교육, 선진사례, 매뉴얼에서는 갈등을 건

강한 주민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그들이 가진 애증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도 한다. 필자가 경험한 갈등은 주민과 주민 개인의 갈등부터 집단과 집단, 주민과 담당자, 주민과 복지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 소식을 직접 취재해 소식을 전하는 주민모임 중 제작 방향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 네트워크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며 참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모임 활동이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변화를 주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과정에서, 주민모임 운영에 복지관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상황들은 두 가지 결과를 보였는데, 그들과 어울리며 진솔하게 얘기하고 부딪히는 과정을 겪었던 갈등은 원만히 해소되어 모임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애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갈등은 서로의 오해가 남은 채 사과와 용서로 끝나기도 하였다.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솔함이었다. 어렵지만 거절당해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약속을 하며,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면을 벗고 주민을 대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진 부담감과 책임감, 어색함은 결국 내 얼굴에도 드러나게 된다. 애써 가면을 가릴 필요 없이 내 감정을 전달 할 수도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진솔하게 주

민을 대하다보니 주민조직화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느꼈던 부담감과 책임감은 점점 무뎠고 함께 점심을 먹거나 커피도 한잔 하며 편안한 관계를 갖게 되기도 했다. 비로소 주민과 어울릴 수 있었다.

친구관계에서도 갈등은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심하면 싸움까지 번지기도 하지만 모든 갈등이 관계의 단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함께 어울렸던 추억과 경험이 깊어서도 있지만 서로가 가면을 쓰고 거저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은 지난 후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접착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주민조직화 사업계획의 점검과 역량강화를 위해 김제시 두월노을마을을 방문하여 김석 대표를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가 깊이 남아있다. "우리아 일이고 사업이니 열심히, 꾸준히 참여하지 않는 주민이 담당하고 때론 원망스럽지, 주민 입장에서 주민모임은 참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모임이다." 맞는 말이었다. 주민들의 모임에 대한 생각과 기대는 담당자와 다를 수 있다. 주민들이 가진 생각, 기대와 가치, 중요도는 가면을 쓰고서는 알기 어렵다. 그들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어울려야 진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어느 말처럼 휘둘릴 필요 없이 꾸미진 모습이 아닌 진정한 본인의 모습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어울려보면 어떨까?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지 5년이 넘은 상태인데 전 남편은 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연락조차 끊은 상태에서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인지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엄마 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관계를 흐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다만, 이 규정의 취지는 이혼율이 급

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민법의 성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모가 자녀의 성과 본 허가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우선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정도를 심리

합니다. 다음으로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衡量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본인이 청구할 수 있고,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성과 본의 변경청구는 사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단

넬스튜던트, 생활 보조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넬스튜던트(단장 김은지)는 지난 5일 청주시에 위치

한 굿네스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보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넬스튜던트는 2022년 8월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 김은지 단장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

치는 일 없이 수월하게 활동하며 즐거운 추억을 새기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나날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i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겨울철·재유행·대비 '22-'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행합니다

18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감염 및 중증 예방효과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접종대상 18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기초접종(1,2차) 완료자 *3.4차 접종 완료자도 접종대상입니다.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확진여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 접종일과 마지막 확진일 중 더 높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 후 접종 권장

접종백신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 BA.1 기반 (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 (화이자) *유전자 재조합 백신도 보조적 활용

접종일정

1. 사전예약/당일접종(10.27.(목)~)

- 사전예약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또는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
•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연락

2. 18세 이상 전국민 접종(11.7.(월)~)

Table with 3 columns: 2가백신(기반), 예약일정, 당일접종. Rows include Moderna BA.1, Pfizer BA.1, and Pfizer BA.4/5 with their respective dates.

복지정보 제공

[함께하는 사랑밭]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기간: 상시진행
■ 지원대상: 두리모, 희귀난치, 화상, 긴급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 신청자격: 시군구 등 지역사회의 위기 가정 담당자(개인신청불가)
■ 신청방법: 위기가정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
■ 대상선정: 선정 후 한달 이내에 신청기관(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 지원방안: 일시 지원 및 정기 결연,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방송프로그램 연계
■ 문의: 02-2612-4400
■ 참고: https://www.withgo.or.kr/

[함께하는 사랑밭]아동·청소년 생계비, 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 접수기간: ~2022년 12월까지 상시 접수
■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초·중·고등학생)
■ 지원기간: 2022년 9월부터(1년간)
■ 지원조건: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기관: 사회복지관에 한함
■ 신청지역: 충남, 세종, 인천, 충북, 제주, 강원지역에 한함
■ 신청방법: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제출서류 E-mail(srbat123@withgo.kr) 제출
■ 대상선정: 서류 심사, 심의 후 선정
■ 참고: https://www.withgo.or.kr/index.d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2022 기본생활지원사업(보육, 학습, 의료, 주거)

- 사업기간: 상시모집
■ 지원대상: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주거비
■ 신청방법: 사회복지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대상자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유관기관으로 지역복지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학교, 병원 사회사업팀 등)
■ 문의: 043-256-4493

[KBS태원복지재단]위기가정 지원 신청 안내(마을단위NPO 허브사업)

- 신청기관: 전국의 복지관(마을단위 NPO) 업무협약 체결완료 후 신청 가능)
■ 문의: 070-7462-9135

[코아드]코아드 자문료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 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일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일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부터 문의 가능

[KT&G복지재단] 2022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 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선정발표(매월 마지막 주)->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 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참조

[KT&G복지재단] 2022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일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 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일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복지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gwelfare.org

[밀알복지재단]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최대 500만원), 재활치료 및 의료 소모품 지원(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신청방법: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miral.org/) 접속 후 신청서 등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모집기간: 상시접수(해당 지역별 사업기관 리스트 참고)
■ 문의: 070-7462-9135

자원 봉사자 모집

▶ '자원수집도우미' 봉사자
관리센터: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55-2144

▶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환경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34-0840

▶ 무료급식지원 및 도시락 배달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855-3000

▶ 반찬배달 봉사
관리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36-3600

▶ 마을신문 기자단 모집
관리센터: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66-4761

▶ 초등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855-1090

▶ 사설봉사
관리센터: 진천시니어클럽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532-3104

▶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843-1432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9988요양원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77-9988

▶ 행정 업무보조
관리센터: 한국농어인협회 충청북도협회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33-561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복지만평

위로

이창신 www.bokmani.com

